

SAd.c.2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第5次 亞細亞連帶會議

The 5th Asian Solidarity Forum

일시: 1998년 4월 15일-17일

日時 : 1998年 4月 15日-17日

Date : April 15-17, 1998

장소 : 한강호텔

場所 : 漢江호텔

Place : Han-Kang Hotel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韓國挺身隊問題對策協議會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the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 일정표

첫째날(4월15일수요일)

4.15.30일 동양에서 '아시아 연대의 비전대회' (김운옥.자문회참).  
주최: 한국여성연맹

시간	장소	내용	순서 및 담당자	비고	
정오	12:00	일본대사관앞	수요시위(308차)	주 관 : 뭉치(풍물) 사 회 : 양미강총무 인사의 말씀 : 김운옥 공동대표 각국대표인사 : 일본(2),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성명서 낭독 : 한국염 실행위원 구 호 제 창 : 사회자	
	12:40	묵호집	점심식사	할머니와의 만남 ( 사회 ; 김신실실행위원 )	
	2:30	한국일보앞	송암교회버스 승차		
	4:00	세미나실앞	등록, 접수	<접수부 : 정숙자 실행위원> 접수 (1) : 김신실실행위원 (3명) 접수 (2) : 이경실실행위원 (3명) 자료판매키오너 : 박미경, 이성순	
오후	5:00	세미나실	개회식	<회의부 : 고혜정 실행위원> 사 회 : 조미리 실행위원 개회인사 : 윤정옥 공동대표 축하말씀 : 운후정여성특위위원장 경과보고 : 양미강 총무 광 고 : 한국염 실행위원	
			발제	<사 회 ; 조미리 실행위원> 1)대만 : Ho Bih-Jen(TWRF) 2)필리핀 :Ms.Richelda Extremadura (Lila Pilipina) 3)필리핀:Ms.SusanMacabuag(Malaya Iolas) 4)인도네시아 : Mr. Paulus R.Mahulette	
저녁	7:00	만찬실	환영만찬  윤후정 여성특위위원장 초청만찬	사 회 : 김운옥 공동대표 초청의 말씀 : 이효재 공동대표 인사의 말씀 : 운후정(여성특위위원장) 격 려 사 : *오재식 (한국선명회회장) *한영애(국회여성특위위원장) 참가자 소개 : 사회자	
	8:00 10:00	세미나실	아시아문화의 밤	<문화행사담당 : 김묘주실행위원> 사회 : 임지영 합창 : 불교합창단 각국 문화 발표 : 한국 - 살풀이 (강혜숙)	

둘째날 (4월 16일 목요일)

	시간	장 소	내 용	순서 및 담당자	비고
오전	7:30	호텔식당	아침식사	메뉴 : American Breakfast	
	9:00	세미나실	발제 <한국>	<사회 : 정진성 실행위원> *신혜수 : 정대협운동의 성과 *지은희 :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	
	10:30	세미나실 앞	휴식		
	11:00	세미나실	발제 <한국>	<사회 : 정진성 실행위원> *김신실 : 생존자 현황과 과제 *이미경 : 국회의 입법 활동과 과제	
오후	12:00	호텔식당	점심식사	메뉴 : 삼계탕	
	1:30	세미나실	발제 <일본>	< 사회 : 다카하시 기쿠에 > *김영희(ICR) : 아시아연대회의보고 *스즈키유우코(여성전쟁인권학회) : 아시아연대운동의 성과와 과제 *니시노루미코 : 운동평가와 과제 *마쯔야야요리:국제운동에서본'위안부' 운동의 평가와 행동제안	
	4:00	세미나실 앞	휴 식		
	4:30	세미나실 만찬실	그룹토의 - 영어권 - 일어권 - 한국어권	< 사회 : 정숙자 실행위원 > *영어권 *일어권<1> <2>, <3>, <4> *한국어권<1><2><3><4>	
저녁	6:30	호텔식당	저녁식사 (환영애국회의원)	메뉴 : 불고기	
	8:00 9:30	실행위원실증	분과별 발표	< 사회 : 정숙자 실행위원 >	

셋째날(4월 17일 금요일)

	시간	장 소	내 용	순서 및 담당자	비고
오전	7:30	호텔식당	아침 식사	메뉴 : American Breakfast	
	9:00	세미나실	종합 토론	사회 : 김운옥 공동대표	
	11:30	세미나실	결의문채택과 기자회견	사 회 : 양미강 총무 기자 회견 : 정대협공동대표, 각국대표 성명서낭독 : 조미리 실행위원	
오후	12:00	호텔식당	점심 식사	메뉴 : 비빔밥	

발제일시 : 15. Apil (Wed.) p.m 5:00 ~ 7:00

- ▶ 필리핀 : 1) Richelda Extremamadura  
2) Susan Macabuag
- ▶ 인도네시아 : Paulus Mahulette
- ▶ 대만 : 하벽진(Ho Bih - Jen)
- ▶ China

## Lila Pilipina 캠페인에 대한 평가보고서 및 캠페인 방법과 계획

(1998년 4월 15-17일간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릴 제 5차 아시아 여성 단결 회의를 위하여)

Richelda Extremadura

### 서론

1997년은 Lila Pilipina의 정신대 희생자들에게는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문제에 대한 운동을 보다 더 많이 전개해내었기에 무척 활기넘친 한 해였다. 대내외적으로 정신대 희생자들은 일본 정부에 대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조치를 시작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신대 희생자들은 그들 조직을 강화시키는 활동까지 계속해왔었다. 대내적으로 여러 면의 단결을 꾀하는 동시에 위안부들 단체나 개인의 참여 또한 이끌어 주었다

#### -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배상을 요구하면서

지난 1997년 5월 16일 3시간동안 3명의 필리핀 위안부 생존자들은 동경 대법원에서 열린 필리핀 위안부들의 배상문제에 관련된 16차 청문회에서 증언하면서 제 2차 세계대전에 일본군인들에게 당한 성폭행과 위안부생활을 열거하였다. 68세의 Julia Porras는 70명이상이 뻣뻣히 참석한 법정에서 일본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는 Davao del Norte에서 일본 진영을 주둔시키던 곳에서 위안부생활을 8개월간 하면서 외우게 되었던 것이었다. Julia의 증언에 의하면 '아사다요, 아사히가 노보루' (그날 아침, 아침에 태양이 떠올라) 라는 이 노래를 일본군들이 매일 아침마다 불렀다 하였다.

70 세 된 Cisterla Alcober 는 간이호(여우굴)를 파는 작업을 강압적으로 하였고 자신이 판 그 간이호(여우굴)속에서 일본군들에 의해 밤마다 강간당해야했다고 증언했다.

70세의 Rosario Nopueto는 일본군들에게 강간을 당한 후, 그리고 2차례에 걸친 대학살의 경험뒤에 낳은 딸의 이름을 Milagrosa 즉 '기적'이라고 지은 연유를 설명하였다. 첫 번째 학살 때 그녀의 아버지 삼촌 사촌그리고 이웃들이 목베였고 그리고 그녀는 강간을 당했으며, 그 뒤 2번째 학살때에 일본인들을 접대하던 동료 위안

부들의 목도 잘려나갔다고 증언하였다.

Lila Pilipina 또한 배상금 문제를 위한 재판을 위해 1997년 7, 8월에 일본인 변호사들과 함께 증거를 찾는 일을 하였으며 필리핀 위안부들이 억류되었던 곳을 증거 문서화하는 일과 46명의 필리핀 원고들을 위해 일본 변호사들의 집중적인 인터뷰에 응하였다. 1997년 1월에 시작된 필리핀 정신대 협의회와 지지자들은 마닐라에 있는 일본대사관앞에서 한 달에 두 번 정도의 시위 모임을 가져왔다. 어떠한 날씨에도 그 협의회는 전쟁기간동안 정신대의 고통을 서술하는 단막극을 무대에 올리거나 노래와 춤을 추었다. 전쟁동안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주장하면서 열정적인 연설을 하였다. 국내외 기자단들은 이 일을 취재하기위해 모였으며 이 협의회를의 주장을 신고자 인터뷰했다.

7월 일본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의 여러 지원단체로 형성된 단체연대가 시작되었다. 그 연대의 목적은 정신대 희생자과 그 생존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배상을 좀더 강하게 요구하고자 함이었다.

또한 1997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로 세계 여러 지도자들과 저명인사들이 작성한 호소문을 서명과 함께 보낼 계획도 세웠다.

Lila Pilipina 와 필리핀, 일본 한국, 대만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정신대 협의회는 국제 노동기구 (ILO)가 1997년 6월 3일에서 14일까지 열리는 제네바 총회에 연대 호소문을 전달하였다.

ILO 대표 이사인 Michel Hasenne에게 보내진 국제 호소문은 일본 정부의 배상과 정부차원의 사과에 대한 정신대 생존자의 요구를 강하게 일본정부에게 촉구하는 특별한 결의문을 신었다. 그 호소문에 1997년 3월 ILO 전문위원회의 보고서가 첨부되었는데, 일본군대의 정신대 여성에대한 처우는 ILO에 규정된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노동에 대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그리고 일년이 되지않아 일본 교과서에 정신대 여성과 일본이 전쟁중에 아시아 여성들을 이용한 위안부 제도등에 대해 수록되었지만, 일본 어떤 단체에서 이러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요구하여 정신대 대책협의회에서는 이들과 투쟁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행위는 일본의 과거 전쟁중에 저지른 죄를 왜곡하며 정신대 여성에 대한 역사적인 진실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난하며, Lila Pilipina 는 주장하기를 교과서에 불충분하게 언급된 몇줄의 내용은 대만과 한국 여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다루었고 필리핀 여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협의회는 일본정부가 필리핀에서 일본 군대들이 필리핀에서 자행했던 정신대 체제를 정부차원에서 조사하기를 요구하였다. 이는 1941년에서 42년에 걸쳐 필리핀에 해군 대위로 (3,000 명의 일본군을 지휘했던) 3개월간 복무했던 야수시로 나께소네 전총리의 말을 미루어 나온 요구이다.

다음은 Lila Pilipina는 정신대 여성들에 관련된 세계적인 대회에 참여했던 기록이다

- 타이페이 IW 지원단체 모임 4월 20-24일
  - 오키나와 전쟁 희생자에 관련된 겐조모임 7월 19-26일
  - 위안부 로사를 추모하기 위한 동경 모임
  - 정신적 충격에 관련된 심포지움과 포럼 10월 23-26일
  - 정신대 관련된 오사카 모임 9월 21일
- (justice and peace?? 어떻게 해야할지..)

-----

[ 더 강력한 단체를 형성하기위한 우리의 노력]

일본정부의 법적인 보상과 배상을 위한 협회회의 캠페인을 더 완결하게 만들기 위하여 Lila Pilipina 는 국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관련해서 국내 캠페인 활동에 관여하였다.

Lila Pilipina는 피켓, 집회, 행진같은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여 국내적인 문제에 그들이 지원한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Gabriela, Bayan 그리고 Karapatan 같은 다른 조직과 결속력도 보인다.

- 기름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집회 2월 7일
- 국제 여성의 날 행진 3월 8일
- 노동절 집회 5월 1일
- Hacienda Looc에서 농민들과의 단합대회 5월 28-30일
- Peso 가치 절하 반대 시위
- 현 시국에 대한 시위 7월 28일
- 빈곤에 대한 시위 10월 21-24일
- 여성 억류자들에 대한 농성 12월 5일
- 인권옹호를 위한 조치이행 12월 10일

이와같은 활동에 참여한뒤로 협회회 회원들은 국가의 문제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었다. 대부분 빈민층출신인 정신대 여성들은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계층여성들같은 다른 조직의 문제와 고민을 함께하기 시작하였다.

더욱 주목할만한 사실은 이러한 활동동안 그들의 상황을 어떻게 그들이 말했는가이다. 특히 그들은 그들이 겪은 고통이나 정신적 충격을 강력하게 증언했으며 한편 다른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조치를 취하는 단체나 개인을 위해서는 정신대 자체의 문제이상으로 열심히 협조해왔다.

이러한 점에서 정신대 협회회가 그들의 활동을 통해 다른 조직에 의해 더 많은 감

사와 이해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태도에서 그들의 문제에 대해 더 폭넓은 지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연맹의 형태로 자신들의 과거를 말함과 동시에 그들은 다른 집단의 사람들과 폭넓게 접하게 되어 자신들의 생각을 좀더 명료하고 자신감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다 그들의 투쟁을 이끌어 가게하는 힘과 용기가 되었다.

연맹에 참여하는 것과 달리 Lila Pilipina 역시 정신대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각 지역에서 단합시켜 조직을 형성시키는 일을 떠맡았다. 여러 스태프들과 지원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기적인 모임과 방문이 이루어지며 이런 것은 다른 공동체의 여성들과 단체에게 위안부들의 문제를 알리게하는 수단이 되었다.

최근에는 Metro Manila에는 3개의 단체가 있으며 Cebu, Bohol, Iloilo, Bacolod, Davao에 2개의 단체가 있다.

Metro Manila의 3 지역에서 매월 모임을 가지며 이 모임에서 위안부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문제에 대한 교육 과정과 다양한 조직 활동에 대해 논의를 한다.

Lila Pilipina는 당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의견과 생각을 주고 받으며 결속을 강화시키기위해서다음의 회의들을 주관해왔었다.

#### \* 월 총회

매달 한번씩 정신대 모임을 가지고 캠페인에 대한 최근 현안을 논의한다. 교육 세미나를 가짐과 다른 나라에서 진행중인 위안부여성들 캠페인에 대한 정보를 나눈다. 이러한 모임가운데 정신대 희생자들에게 행해지는 복지정책에 대한 보고를 듣게 된다. 단체 무용이나 각자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모임같은 사회적 활동을 가진다.

#### \* 정신대 협의회 모임

정신대 협의회 모임을 일주일에 한번씩 가지려고 노력해왔다. 이러한 모임은 Lila 관리들과 지역 대표자들 그리고 스태프들로 이루어졌다.

이 협의회는 시위나 다른 연맹과의 관련사항등 그리고 다른 활동 계획과 최신 정보를 논의하기위한 통제 기능 이상을 한다. 최신 정보를 교환하고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하는등의 일도 행해진다. 여기 정신대 희생자들은 스태프들과 편지를 작성하여 국제적인 지지자들에게 보낸다.

의료와 복지 전달 체제도 정신대 희생자들이 참여한 Lila Pilipina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은 자신들에게 더 의미심장한 조직의 일부분으로 관계지어진다.



[결론]

지난 한해동안 더 활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일본정부에 요구를 더 강하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진다. 조직내부를 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지지세력을 연합한 것이 이런 상황에서는 주요 추진력이 되어왔다.

어떤 면에서보면 아시아 여성기금에 관련된 정책은 정신대 희생자들간에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한다. 그리고 AWF가 그들의 요구에 대한 올바른 배상이 되지 못할 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경제적 이유로 기금에 관심을 가지게 된 26명의 정신대 희생자들의 결정을 존중해주기로 하였다.

AWF 문제의 한 결과는 정신대 희생자들이 일본 정부에 제기한 문제와 요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동시에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다른 결과는 그 기금을 받은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 단결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위안부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위하여 존재하는것이 정신대협의회인 것이다. 올해 활동은 좀더 단결된 조직이 주요 문제를 대응하여 관련된 다른 문제까지 다룰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계속되는 지지와 일본 정부로부터의 법적 보상에 대한 운동 그리고 위안부 문제와 그들의 경험을 폭로하고 군국주의 진상을 밝히며 정신대 희생자들을 더 깊이 교육시키기위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들을 다루자함이였다. 자신들의 조직을 이용하여 국내외적인 지지를 확대하여 자신들의 올바른 명분을 주장 옹호하는 정도까지 발전하였다.

그들 대부분에게는 이러한 활동은 그들 생애에 여명과 같은 권능을 부여받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캠페인은 대중과 방송매체의 주목을 받게 되어 ASW에 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성공을 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2차대전동안 일본군이 자행한 강간과 성적 노예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AWF이 적합성 여부와 그리고 이 기금을 받아들여야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논제로 하게 된 것이었다. 하시모토 일본 총리의 편지를 이 정신대 희생자들이 거부하며 여성기금을 받아들인후에 국가적인 배상을 주장하는 것을 고집하면서, Lila Pilipina Lolos는 일본이 전쟁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것과 정부차원의 법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정신대 희생자들의 요구를 대신 하면서 여성기금의 한계를 지적하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동시에 여성기금은 정신대 희생자들의 이러한 운동에 맞서서 적대적이고 투쟁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운동에 참여했던 정신대 희생자들을 초대하여 만일 이 희생자들이 계속해서 일본 총리의 사과문을 거부하며 의료 복지 사업지원을 거절한다면 이 희생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2 백만엔의 보상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여성기금 대표자들은 앞으로 Lila Pilipina Lolos가 여성기금을 이용한다면, 총리의 사과문과 더불어 의료 복지 사원을 받아야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2 백만엔의 돈이 더 이상 지불 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이런 적대적인 협박을 받고 개인적인 재정상태 때문에 5명의 희생자들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지금은 이런 복지 기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들은 총리의 사과문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Lila Pilipina측은 여성기금을 위안부 문제의 해결방안이라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면서도 여성기금에 관해 정신대 개개인의 결정은 존중해주기로 했다. Lila Pilipina또한 이런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여성기금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정신대 희생자들과 관계에 있어서는 자문의 역할을 해주기로 했다. 이런 자문의 역할은 여성기금을 이용한 정신대 개인에게 실제로 필요하다면 또 다른 정신대여성과 지금까지 해온 캠페인에게 있어서 충분히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은 정신대 여성들이 캠페인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 면에서 여성기금을 지원받는 것을 용기있게 거부할 수 있게 도움이 되며, 또한 지원하는 과정에 닥치는 어려움을 의식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

Lila Pilipina가 확립한 이런 과정 때문에 Lila Pilipina는 실제 궁핍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단결된 마음으로 여성기금이 제시하는 돈을 거부할 수 있으며 국가차원의 보상을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동시에 여성기금을 받았던 많은 정신대 희생자또한 Lila Pilipina가 일본정부로부터 국가적 배상을 요구하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위나 총회 그리고 다른 필리핀 정신대 희생자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다. 여성 기금을 받고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위나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성기금이 절대로 일본정부차원의 보상이 아니며 일본정부의 법적인 책임이 아직 행해지지 않다고 보고 있다. Lila Pilipina는 그러무르 필리핀 정신대 희생자들간의 결속력을 지지하며 (여성기금을 받던 혹은 받지 않았던 간에) 보상을 요구하는 운동을 계속하여 행해 나갈 것이다.

**5<sup>th</sup> Asian Women's Solidarity Forum  
April 15-17, 1998, Seoul, Korea**

**A Report by the Asian Centre for Women's Human Rights/Malaya Lolás**

**Presented by Susan D. Macabuag**

A pleasant day to all of you! In behalf of ASCENT/ Malaya Lolás, I am expressing our appreciation to the organizers of the 5<sup>th</sup> Asian Women's Solidarity Forum for having persevered in this struggle for the restitution of justice and human rights for the violations committed against women by the Japanese Imperial Army during World War II.

In a recent International convention, Ms. Mary Robinson,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said: "In recent times, there have emerged extensive accounts of violence against women in times of armed conflict. Systematic rape and other forms of gender based violence are increasingly used as weapons of war in armed conflicts in different regions of the world." In the same statement she urged "all States to ratify without reservations international instruments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women" and that "It is the responsibility of all civil society to lob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to withdraw all reservations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 particular those relating to the human rights of women." As we all know, the recogni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in times of armed conflict was made possible primarily when the Asian women, 50 years after World War II, have made known the stories of sexual slavery.

**ASCENT/ Malaya Lolás**

In the Philippines, six years after the first Filipino comfort women came out, the Malaya Lolás continue to demand direct state compensation and individual apology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The Malaya Lolás reject the Asian Women's Fund as it distorts the issue thus justice can never be realized

Malaya Lolos is an organization of former Filipino victims of military sexual slavery and violence by Japan. It is a program of the Asian Centre for Women's Human Rights and it was formed as part of the protest action initiated by the former comfort women against the Asian Women's Fund. Malaya Lolos has about 102 members, all in their advanced age.

**The main objectives for which the Malaya Lolos was organized are:**

- 1)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women's human rights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women victims in wart and armed conflict situations;
- 2) To advance a campaign both in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for restitution of justice and human rights for the victims;
- 3) To campaign for the rejection of the Asian Women's Fund and continue to demand for direct state compensation;
- 4) To campaign and urge Japan to accept the recommendations of UN Special Rapporteur Rhadika Coomaraswamy;
- 5) To advance a campaign to redefine and broaden the definition of wartime rape to include sexual slavery, forced impregnation, mass rape, chemical warfare impact, military sexual slavery, genocide, trafficking, physical experiments, mutilation as war crimes;
- 6) Build solidarity for comfort women and other survivors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An outstanding case of violence against women documented by the Malaya Lolos is the case of mass rape in Mapanique, Pampanga, Philippines. The incident happened in the early morning of November 23, 1944. The Japanese Imperial Army bombed the village, pillaged their homes and property, tortured, mutilated and killed the men in front of their wives and daughters. These women were then captured and brought to a house they used as a garrison where each one of them were raped by two or more soldiers. Today, there are about 90 survivors of that mass rape. Today, too, the house which the villagers call "*Bahay na Pula*" or "red house" still stands on the same spot, a mute witness of a gruesome past.

**Accomplishments**

- To this date, not one of the Malaya Lolos had received the Asian Women's Fund. The Malaya Lolos believe that the Asian Women's Fund only distorts the issue. Justice will never be realized unless Japan clearly admit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nd offers legal compensation.

- ASCENT sought for and requested Prof. Frits Kalshoven to appear as an expert witness o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Prof. Kalshoven is a professor emeritu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ho in 1992 and 1993 was the Chair of the UN Security Council commission of experts to investigate war crimes committed in former Yugoslavia. As an expert witness, he discussed a set of international laws established 90 years ago - the Hague Convention and he affirmed that individual war victims can claim compensation from the government for war atrocities committed by the Japanese military army. Prof. Kalshoven was the first overseas legal expert to speak before a Japanese court.
- Progress of the court hearing;

Lola Gertrude Balisalisa of the Malaya Lolos appeared before the final hearing at the Tokyo District Court. The Japan Committee to support the Malaya Lolos, a solidarity network of Japanese groups provides support for the lawsuit.

Founded on the premise that judicial institutions remain the most important mechanism for the defense and promotion of fundamental rights, the Malaya Lolos is laying the groundwork for the filing of a lawsuit for the victims of the mass rape in Mapanique, Pampanga. A group of Filipino lawyers have prepared the statements of the survivors while historians and researchers from both Japan and the Philippines are conducting extensive research to provide the lawsuit with the necessary facts and historical as well as legal perspective.

### **Networking: nationally**

- The Malaya Lolos hold regular assemblies as well as commemorative programs for special events in their history such as: (1) Nov. 23, the state date of the incident in Mapanique (2) March 8, International Women's Day. It also holds solidarity gatherings on special events such as Christmas Day. These events are usually covered by the media which brings attention to the cause
- Malaya Lolos has established linkages with schools and other women NGOs to generate support for the victims particularly in addressing the stigma of rape.

### **Networking: internationally**

- Malaya Lolos joins and supports solidarity efforts by other groups. Among these efforts are; the Peace Boat, the consultative meeting held in Taipei, Taiwan organized by the Taipei Women's Rescue Foundation.
- Malaya Lolos have hosted several visit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o come to Mapanique, Pampanga to have a better perspective and understanding of violence against women in war situations.
- ASCENT of which Malaya Lolos is a program, organized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Violence Against Women in War and Armed Conflict Situations in Tokyo, Japan towards the end of 1997. The conference was attended by scholars, scientists, researchers, academicians, women activists - experts in their fields. The proceedings and conclusions of said conference focused on the enormity of the tragedy the women have to live with, the unprecedented nature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e denial of justice and reparations and the Immeasurable ruin of human life. This will form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e deliberations of the Special Rapporteur, Rhadika Coomaraswamy. In her forthcoming report to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this year.

### **Evaluation and Plans for the Future**

For the Filipino, the cause of the comfort women has gone a long way since the issue came out a few years ago.

- The victims have gained public recognition in many ways for their courage to speak out. The recognition has given the victims confidence and self-esteem.
- Comfort women in the Philippines have established linkages both on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have generated some support from these solidarity groups.
- The issue has been brought to the attention of the United Nations and it is now being seriously considered by its committee on Human Rights particularly focusing on violence against women as condoned by the state.
- The court case for the first batch of plaintiffs was sustained up to the submission of the case for decision.

## **Problems**

Despite the long way that the issue on the Comfort Women has gone, Japan continues to refuse to admit its war responsibility and payment of compensation. The conservative group in the government continues to exercise their influence and continue to work for the elimination of references to "comfort women" in their textbooks.

Locally, the advocacy group, ASCENT which has undertaken the task and the challenge to bring about redress for the Filipino comfort women is burdened with problems of lack of logistics and personnel. This continues to hamper the work despite deep commitment and relentless effort.

Differences in opinion and approaches among the groups working on the issue locally, have also contributed in weakening their act as a major political group.

Meanwhile the victims continue to grow weak and sickly requiring more medical attention. Many have already passed away. Time is running out on most of the victims.

## **Plans**

- ASCENT/Malaya Lolas will continue to demand that Japan admit its responsibility for war crimes; restitution of justice thru direct legal compensation and apology by the state.
- It will continue its campaign against the Asian Women's Fund.
- It will continue its solidarity actions with the victims locally and establish stronger solidarity actions with other victims in the region.
- ASCENT/Malaya Lolas pursue the filing of the lawsuit for the victims of the mass rape in Mapanique, Pampanga, Philippines.
- It will undertake a continuing education program for advocates and victims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women's human rights.

## 대만 위안부 배상요구 운동 현황보고

하벽진(何碧珍)

1996년 2월 일본정부가 연합국 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 건의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성명을 발표한 이후 우리 정부는 매우 강력하게 다음과 같은 4가지 입장을 천명한다.

1. 대만국적 위안부 피해자 및 그 후원단체의 입장을 지지하며 일본정부가 민간모금으로 보상하고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든행위를 반대한다.
2. 일본정부는 반드시 피해자에 대하여 개별 배상하여야 하며 배상금을 일차로 지불하여야 한다.
3. 반드시 공정하고 공평한 입장에서 본 피해사건을 해결하여야 하며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
4. 일본정부는 반드시 위안부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어야 한다.

그 외 1996년 4월 우리나라 입법위원회에서는 148명(90%)이 서명을 발표하여 일본 수상게 유엔(UN)보고 건의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였으나 일본정부는 시종 소극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년 12월 입법위원회에서는 150명(92%)이 제차 일본 수상 및 일본 참의원, 중의원 양 의회에 연대서명을 보내어 일본정부가 새로 법을 제정하여 위안부 문제를 명확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위에서 제출한 4가지 입장은 현재까지 변화가 없으며 위의 입장을 강력히 공개 천명한 외에 우리나라 외교부(外交部)에서는 내정부(內政部)와 협력하여 대만국적 위안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돌보아주는 운동을 계속 추진해왔다.

1997년 1월부터 당시 등록된 42명의 피해자들의 생활보상비를 매월 대만화폐 1만 5천원(미화 \$540, 엔화 60,000엔)으로 높여주었으며 모든 의료비용을 부담해 왔다. 그리고 연로하신 피해자들이 생계가 보상되도록 하여 일본 정부에 계속 항의를 제출하여 그들이 인생의 최종염원을 이루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시종 모르는 체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리어 방자하게 암암리에 조직을 구성하여 그 죄악을 덮어 감추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아시아 여성 평화 국민기금>은 1997년 5월에 대만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거대한 "돈벌이 사기다"광고를 하였다. 이러한 추잡하



고 오만불손하며 큰소리치며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만 국민의 민심과 요구를 무시하는 행위는 우리나라에서 커다란 불만을 일으켰다.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대만정부, 민간단체 및 언론매체를 자극하여 연로하신 피해자 분들을 지지하여 피해배상요구를 끝까지 할 것을 결심하게 하였다. 동년 5월 왕청봉(王淸峰)변호사의 고군분투 결과 각 계층의 다함없는 협조를 얻게 되었으며 또한 위안부 공익광고를 제작, 각 언론매체에 적극 방송하여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응을 일으켰다.

동년 8월 대북시(臺北市) 부녀구원기금회(TWRF)에서는 유명한 역사학자이며 사회 평론가 이신 이오(李敖)선생의 큰 지지속에 대만 역사상 전례없는 민간 모금운동을 전개, 위안부 노인들을 위한 일인당 대만돈 50만원(200만엔)의 사회기금을 성공적으로 모금하였다.

동년 12월 우리나라 정부도 대만돈 50만원을 각 피해자에게 지불하기로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더더욱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를 요구하게 하였으며 배상사죄토록 하려는 의지를 더욱 굳게 하였다.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고 노인들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분 한분은 잔혹한 전쟁과 무정한 참화속에서 무수히 불가항력의 “성폭행”을 당하였으며 요행으로 살아남은 비참한 생존자들은 오만방자하고 추악하며 시야가 편협한 일본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금년 2월말, <아시아 여성 평화 국민기금>은 또 다시 대만의 언론에 광고를 내었으나 대만사회에 아무런 반응도 일으키지 못했으며 그들은 서로간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고통을 덜어주며 서로 오래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다짐하였으며 참혹한 역사를 있는 그대로 일본정부앞에 내놓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본정부를 지켜보기로 하였다.

민간지지 단체로서 우리들은 피해자들이 소극적인 태도로부터 적극적이고 굳은 태도로 바꾸고 있는데 대하여 무한한 존경과 위안을 느꼈으며 동시에 크나큰 책임감도 느꼈다. 어떻게하면 이러한 사건을 저버리지 않고 효과적으로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는가 하는 것은 현재 우리들이 심사숙고해야 할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모든 피해국 및 일본의 지지단체들은 더욱 더 긴밀히 협조하고 서로 함께 운동을 전개하여야 하며 이것이 필요한 국제적 사업이다.

4월 말 우리들은 국회 방문단을 제조직 일본을 방문, 일본 변호사들과 입법을 합동토론하여 일본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현재 대만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기록영화가 곧 촬영될 예정이며 또한 책자도 출판될 것이다. 이러한 것은 모두 각 계층의 지지와 고무 그리고 우리들의 변함없는 신념에 의한 것이며 일본정부는 반드시 이 역사적 죄과에 대하여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오늘날 일본정부는 이러한 죄과를 직시하지 않고 자손만대에 누를 끼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를 이어 대가를 치루어야 할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를 심사숙고 하기 바란다.

## 전쟁 희생자 중국 여성들과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 1. 중국 여성 희생자들의 고통에 대한 개요

세계2차대전에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여 일본군에 의해 Mengxian현과 Shanxi등에서 그 지역 여성들을 잔혹하게 겁탈한 사실을 같이 일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현장 검증을 해보았다. 그 조사는 여성 희생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알아보는 것이었으며 일본군대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강제구류등의 만행을 저지른 것을 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한 고장에서 50명의 여자들이 일본 군대에 의해 위안소로 끌려갔으며 그중 20명이 아직 생존해있다고 전했다. 이 중국여성들의 대부분은 납치되었을당시 대부분이 15세에서 18세이며 20대도 몇 명이 있었음이 나타났다.

당시 13세였던 Qiaolian이 가장 어린 나이로 끌려간 소녀였다. 희생자 대부분이 미혼이었으며, 그들중 몇 명은 미성년의 소녀였고 임신한 여자들도 있었다.

여성 희생자들 대부분은 농촌출신이었으며 집에 있다가 무장한 일본군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던 것이었다. 짧게는 20일정도 길게는 반년을 강제 감금되었다. 그렇게 감금된 상태에서 일본군들에게 여러 차례 아니 수십차례를 강간당했다. 심지어는 어떤 여성들은 은밀한 곳에 이상한 물질을 집어넣는 등의 잔혹한 방법으로 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당한결과 끊임없이 분노 피를 흘렸으며 그런 상황에도 매일 강간당해야했다. 잠시라도 방심하게 되면 혀대나 총으로 두들겨 맞으며 상처를 입은 것이 아직도 확연하게 보였다.

납치당한 일본 여성들은 Mengxian에 일본군 진영에 각각 감금되었고, 그런 장소는 동굴이나 토치카같은 군주둔지였다. 때로는 민간인 집이나 동굴같은 곳이 일본군 주둔후 위안소로 변형되었다. 그 위안소는 입구에 경비가 서있었으며 화장실 갈 때조차도 감시받으면서 개인의 자유는 조금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끼니는 옥수수죽으로 하루에 한 두끼만을 공급받을 뿐이었다. 심지어 그들 중 몇 명은 일본군인들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옷조차 입지 못하였다.

이 여성들이 일본 군인들에게 짓밟힐대로 이용당하여 더 이상 쓸모없게 되면 희생자 가족들은 희생자들의 석방을 위해 수백 은전을 몸값으로 지불한 뒤 데려가게끔 요구당했다. 수백은전은 그런 상황의 평민들에게는 엄청난 액수의 금액으로 그들은

집이나 땅 그리고 가축을 팔거나 빚까지 져야했다. 하지만 이렇게 석방된 희생자들은 너무나 학대를 심하게 당했기에 걸을 수도 없으며 심지어 앉지도 못하였다. 그래서 들것에 싣려서 가족들이 데려와야 했었다. 일단 그 희생자들이 돌아온뒤에도 가족들은 다시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기위하여 백방으로 돈을 꾸어야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심하게 다쳤기때문에 희생할 수 없었고 불치의 병을 지니고 살아야했다. 그리하여 어떤 희생자들은 인생을 망치게 되었고 노년이 되기까지 불행하고 황량한 삶을 살아야했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군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심하게 받아서 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여성들에게 끼쳐진 충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정도로 심각했다.

현장 조사를 할 당시, 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은 일본군들에게 당한 상황을 이야기하면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지역 사람들마저 일본군들이 자행한 방화, 살인, 노략질같은 범죄를 상기하면서 똑같이 분노하였다.

Hainan 지역의 Fu Heji씨에 의해 행해진 조사에 따르면, '위안소'는 중국 Hainan 지역을 일본군들이 침략한 3번째 달 1939년 4월경 점령지에 세워졌다고 했다. 일본군들의 '위안소'는 1941이후로 점차 널리 확산되기 시작되었다. 그 즈음하여 그들은 시골, 도시 곳곳 일본군에 점령된 곳이면 어디든지 만들어졌다. 60개가 넘는 위안소 수가 확인되었다. Hainan 섬의 중심도시와 16개의 지방도시외에 Yaxian 과 Changjiang과 Basuo 그리고 Nada같은 곳의 '위안소'의 '위안부'의 숫자는 1300 명이 넘게 추산된다. 따라서 이는 일본군이 Hainan섬에서 납치해간 여자들의 숫자가 10,000 명이 넘는다는 것이다. 그들중 일부는 강제노역의 명목으로 집에서 그대로 끌려갔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일본군이 무자비하게 집에서 그냥 끌어내간 것이었다. 또 교묘하게 간호병의 명목으로 피여내서 데려온 여자들도 있었다. 이 여성들의 일부는 강간당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일부는 강간당한뒤에 증거은폐를 위해서 그대로 살해되었다. 심지어 계속된 성폭행으로 얻은 성병의 감염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생매장당한 여자들도 있었다.

Shanghai Normal 대학의 Su Zhiliang교수는 이런 문제를 조사한뒤에 일본군의 정신대 제도에 의해 중국인 여성들이 20만명넘게 희생되었으리라 믿게 되었다.

현재 Mengxian 현이나 Shanxi 지역의 현존하는 희생자들은 간키야마 히로시 변호사 그리고 오노데라 토시다카 변호사 또 우모리 노리코 변호사들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일임하여 1995년 일본 법정에 전쟁 희생자로서 배상금을 받고자 문서를 접수시켰다. 그리고 이 건은 지금 처리중에 있으며, 관련된 중국 여성피해자들과 그 관계인들은 일본법정에 참석하여 기대감으로 사건처리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2. 가해국가로서 일본은 침략적인 전쟁중에 끼친 피해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져야한다.

전쟁이란 범죄는 국제 범죄 가운데 가장 잔인한 것으로 그 책임이 관련된 책임자나 지도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민족 전체에게 지워지는 전쟁범죄의 개념으로 현 국제법에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침략적인 전쟁으로 그 책임은 전쟁을 저지른 개개인에게도 지워져야한다.

2차 세계대전후 Nuremberg 국제 군사 법조항에 따르면 전쟁 범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평화를 파괴한 범죄 (2) 전쟁 범죄 (3) 인류를 반역한 범죄 또는 '전쟁 전후로 살인, 학살, 노예화, 국외 이송, 그리고 민간인들을 비인간적으로 다룬 행위'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앞서 말한 범죄중 어느것을 범하기이전 공모하거나 계획한 것을 수립하거나 실행하는데 참여한 지도자, 조직원들 혹은 선동자나 공범자 모두 책임을 져야한다'라 하였다.

2차세계대전중에 중국에 가한 침략적 전쟁을 획책하여 저지른 것으로 일본의 위치는 침략국으로 세계널리 알려져있었다. 몇 명의 전범들은 전 소련연방의 Khabarov 에서, 중국의 쉐양과 타이유안이나 극동지역의 국제 군대 사령관같은 곳에서 이미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일본군대의 침략전쟁기간동안 정신대를 조직한 문제는 완전하게 감추어져있고 그러므로 부합되는 재판이나 응당 치뤄져야할 법적 조치를 피해왔다.

증거자료상 나타나길 군대 사기를 진작시켜 침략야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군대내에 '위안소'를 설치할 것을 승인했었다. 이런 목적으로 일본인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뿐만아니라 동남 아시아 여러국가에서 '위안부'들을 탐색해내었다. 특히 중국 여성들은 납치되거나 속아서 유인된 것으로 자신의 자유의지와는 전혀 무관하였다. 중국여성들에게 만행을 저지른 일본 군대는 일본 정부의 사주로 중국을 공격하였으며, 일본 정부에 의해서 위안소마저 승인받아 세웠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는 중국여성들이 일본군에의해 당한 고통을 보상해야할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3. 전쟁 배상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를 고발한 중국 여성 희생자들의 고소는 출소 기한법을 넘어서지 않는다.

유엔 총회는 1946년 12월 11일에 결정된 안 95조 1항에서 만장일치로 Nuremberg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e 헌장에 따라 설립된 국제 법 원칙을 승인했다. 이 원칙에 따르자면 1968년 11월 유엔은 '인권을 유린한 범죄와 전쟁 범죄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법'을 다시 한번 채택하였다. 일본정부를 상대로 전쟁 희생자에 대한 배상 소송은 일본정부가 이끌어가지 못한 전쟁 책임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전쟁 범죄는 이러한 전쟁 책임 즉 '인권을 유린한 범죄' 같은 책임을 가져오며 출소기한법에 의해 제지받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여성 희생자들은 어느 때라도 배상금에 대해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기까지 배상금과 더불어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낼 권리를 가지고 있다.

#### 4. 중국여성 희생자들에 의해 일본에 제기된 조치는 중국 일본 공동 성명서와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1972년 중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외교관계를 재개하였고 일본 중국간의 공동 성명서를 작성하여 중국정부에서 더 이상 전쟁 배상금 문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런 성명서는 개인적인 희생자 즉 정부간의 배상차원이 아닌 문제같은 것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개인과 정부는 구별된 개체인 것이다. 중국 정부는 결코 민간차원에서 일본정부로 부터 전쟁 배상금을 주장할 권리마저 포기하는 국제 협약이나 협의서 혹은 조약서를 승인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일본정부로 부터 배상금을 받아내고자 법정 조치를 취하려는 중국 여성 희생자들의 권리는 계속 존재한다.

#### 5. 소송 진행에 있어서 일본 법정에 제시하는 의견

1995년 일본 법정이 중국여성 희생자들로부터 소송을 접수한지 2년이 되었지만 언제 그 소송이 법정에 올려질는지 여전히 알 수 없다. 중국을 침략한 역사에 대한 교과서 개편에 대한 어느 학자의 소송건에 대한 마지막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30년이 걸렸다고 한 방송매체에서 전한바가 있다. 같은 방법으로 중국여성들에 대한 소송도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나이많은 희생자들은 살아 생전에는 정신적 충격을 달래기 힘들 것이다.

또한, 희생자들의 나이로 인해 외국으로 여행하는 것이 불편함을 생각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1) 일본 법정은 소송 처리 절차를 더 빠르게 처리할 것이며, 걸리는 시간을 3년이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 (2) 한 건에 대한 판결은 다른 희생자들에게도 영향을 주도록 해야한다. 만일 같은 경우임이 판명된다면 다른 희생자들도 같은 소송을 각자가 제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다.

위와 같은 제안을 내가 하는 것은 이런 소송의 특수성에 기초를 둔 것이며 대표자들의 승인을 얻기를 바랄뿐이다. 또한 입법적인 형태로 일본정부에 의해 승인받기를 바란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말하자면, 일본 정부는 일본정부가 일으킨 침략전쟁에 의해 중국 여성뿐만 아니라 중국 국민 전체에 가한 고통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보상과 공식적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조치는 일본정부가 자신의 침략전쟁을 일으킨데 대한 진지한 회개로 여겨질 것이며, 나아가 역사적 비극의 재발을 피하기 위함이다. 여기 중국 격언이 있다.

'공명정대함이 무한한 지원을 받을 것이다' 일본정부로부터 받아낼 전쟁 보상을 위한 중국 여성 피해자들의 소송이 전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각 대표자들로 부터 승인받을 것임을 난 확신하는 바이다.

변호사 강지안

Ahongyuan 법률사무소

중국 베이징

97년 10월

## ■ 한국발제

▶ 일시 : 4월 16일 (목) 오전 9:00 ~ 12:00

▶ 사회 : 정진성

▶ 발제 :

- 1) 김신실 : 생존자 복지활동의 현황과 과제
- 2) 지은희 :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계획
- 3) 이미경 : 대한민국 국회의 활동과 과제
- 4) 신혜수 :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성과

## 정대협 운동 - 생존자 복지활동의 현황과 과제

김신실(한국정대협 생존자복지위원장)

### 여는 글

한국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대협이 조직되고, 활동을 시작한지 어언 8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아시아여성들과의 연대로, 세계여성들과의 연대로 함께 해 온 투쟁은 힘들기도 했지만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민족 자존심의 회복을 위해,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여성들의 존엄회복을 위해 시작했던 운동이 아시아연대, 국제연대 운동의 과정에서 여성인권회복을 위한 운동으로 확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세계여성들과 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본질적인 변화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본 정부의 태도에 다소 변화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 운동의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고, 한국 정부의 태도와 입장의 변화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우리의 운동의 성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피해자 할머니들은 다소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지방에 살고 있는 피해자할머니들은 다소 안정을 회복하여 살고 계십니다. 또한 물질적으로는 대부분 안정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성과를 찾을 수 있겠으나 본 발표에서는 생존자 할머니들의 복지활동과 연관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정대협 생존자 복지활동의 시작과 그 과정

일제시대 전쟁으로 인해 가장 커다란 피해를 입으신 '정신대' 할머니들이 과거의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시던 때, 그분들의 생활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1990년 정대협이 그 첫 발을 내딛은 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할머니들을 위한 첫 위로행사

정대협은 1991년 초에 정신대 신고전화를 개설하여 생존자 찾기 운동을 해 왔습니다. 이 신고 전화에 1년동안 약 200 여건의 사례가 접수되었는데, 이 중 60 여명은 직접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당한 생존자들이었습니다.

정대협은 생존해 계신 분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1992년 5월 1-2일, 1박 2일동안 전국에서 신고한 생존자들을 서울에 초청하여 위로잔치를 가졌습니다. 그 때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지에서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각각 흩어져 있던 할머니들 37명이 처음으로 함께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정대협은 할머니들의 생활이 극히 열악하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택문제가 모두의 큰 걱정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사례가 지금은 고인이 되신 강덕경 할머니였는데, 그 할머니의 경우, 남의 비닐하우스 일을 하면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주거하던 집이 농경지에 물을 대주기 위해 사용하던 고압전기가 흐르는



물탱크실안에 동네 청년들이 방을 만들어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주인이 바뀌면서 나가라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할머니는 매일 새마을 취로사업을 나가서 일을 하지만 올라가는 월세와 물가를 따라잡을 수 없어 살길이 막막하다는 걱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택문제 이 외에도 남의 집 파출부, 식당일 등을 하며 열심히 일했지만 위안부 휴유증 치료하느라 병원비에 쓰고 나니 한푼도 모아진게 없다는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이 모임 이후부터 정대협은 생존자 발굴과 함께 그들의 복지를 위한 활동에 더욱 힘을 쏟아왔습니다.

## 2) 한국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생존자 생활대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운동

정대협이 가장 먼저 서둘렀던 것은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을 위한 생활구호조치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고, 외무부 '정신대실무대책반'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공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부에 대책수립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정부는 국내외 여론과 정대협의 끊임없는 요구에 따라 1993년 5월, 임시국회에서 '일제하 군대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하고, 그해 8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법의 내용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 우선 부여, 일시금 500만원 지급, 월 15만원 생활비 지원, 의료 무료혜택" 등이었습니다. 매월 지원하는 생활비는 1995년에는 20만원, 1996년에는 25만원, 1997년부터는 50만원의 생활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10만원에서 20만원의 생활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3) 민간단체와의 연대 활동

정대협은 또한 이것은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인들과 함께 해야 할 책임이 있다 판단하고,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기관 등에 대해 피해자들을 민족의 품으로 감싸안자는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피해자 돕기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피해자와 지역 민간단체와의 자매결연 등도 추진시켜 왔습니다.

가. 모금활동 - 정대협은 일본 정부가 "법적 배상은 할 수 없고, 민간차원의 위로금 지급" 입장을 밝힌 이후부터 "위로금은 우리가!, 일본정부는 법적 배상을!" 알리며 모금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1992년 12월 1일 정대협은 '정신대할머니생활기금 모금국민운동본부'를 발족시켜 모금활동을 벌여 그 당시 신고했던 할머니 62명에게 250만원씩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1995년, "아시아여성평화 국민기금"을 통한 모금활동과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지급을 강행하려 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대협은 1996년 10월 18일, '강제연행당한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를 조직하여 모금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정대협은 SBS 모금운동과 ARS를 통한 모금운동, 명동입구에서 한 거리모금운동등 활발한 모금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997년 5월 31일까지 모금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할머니 154명에게 3,517,500원과 (일본 송신도 할머니 포함), 미국과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할머니 2명에게 각각 3,517,250원을 전달한후 해산했습니다.

시민연대 이후에도 정대협은 1997년 8월 11일부터 MBC와 동아일보, 한국일보의 공동주최로 "정신대할머니 지키기 2차 모금운동"을 계속하여 현재 약 5억원이 모였습니다. 또한 복음성가 가수인 홍순관 씨는 1995년부터 "정신대할머니

돕기" 전국 100교회 순회 콘서트를 통해 모금된 것을 전국의 할머니들에게 지급해 왔습니다.

나. 나눔의 집 - 정대협이 회원단체였던 불교 인권위원회 여성위원회가 1992년 10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전셋 집을 시작으로 개소식을 갖고 6명의 할머니들을 모시고 생활을 함께 하기 시작한 '나눔의 집'은 1995년 12월에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에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 9명의 할머니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다. 서울중앙병원 - 1995년 8월 15일,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현대그룹에서 운영하는 '서울중앙병원'에서는 정신 대할머니들에 대한 평생 무료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많은 할머니들이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한예로 강덕경할머니의 경우 2년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치료비중 6천 500만원 가량이나 혜택을 받았습니 다. 지금도 피해자 할머니들은 계속 입원, 치료를 받으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라. 천호한의원 - 1994년부터 서울 중심으로 살고 있는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천호한의원에서 무료 한방진료와 치 료를 하므로써 이운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 해모수 치과 - 1997년 할머니들에 대한 치과진료가 의료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고 할머니들의 의치를 해주고, 치과진료를 무료로 해오고 있습니다.

바. 할머니들 심리치료의 일환으로 이경실선생의 지도로 시작한 그림그리기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강덕경할머니, 김순덕할머니, 이용녀할머니의 그림이 엽서로까지 제작되어 일반인들의 깊은 관심과 호응속에 판매되고 있으며, 여러 곳에 전시되기도 하였습니다. 한글배우기는 시도는 했지만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였습니다.

사. 정대협 생존자복지위원회 활동 - 동시에 정대협은 정대협 기구내에 생존자복지위원회를 조직하고, 할머니들 의 병원알선, 주택문제, 장례절차, 가족상담 문제 등을 맡아왔으며, 매년 위로행사 및 나들이를 진행해 왔습니다.

정대협 회원단체인 여성교회의 경우, 매년 5월, 할머니들을 예배에 초청하여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실시 해왔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98년 1월 1일, 대구에서는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이 결성되어 대구 경북지 역에 살고 있는 정신대할머니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대협 생존자복지위원회는 활동비와는 별도 재정으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후원금을 모금하여 할머니 들이 병원입원시 위로비로 1인당 100,000원 지원, 아플 때 약값 보조 및 위로비 명목으로 5만 -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망할 경우 협력단체와 함께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할머니들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

중요한 것은 정대협의 진상규명, 법적 책임 촉구 활동, 생존자 지원활동 등을 통해 생존자들의 생활이 심리적이고 물질적으로 다소 안정을 찾게되었다는 것입니다.

신고 당시에 피해자 할머니들은 피해 의식 때문에 대중앞에 서는 것을 피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기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증언을 통해 일본군'위안부'의 체험을 폭로한 이후에는 운동의 주체자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 습니다. 대학생들의 집회에 직접 참여해 많은 대중들앞에서 증언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므로써 스스로 피해 의식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그런 용기있고 주체적인 활동은 한국 여성운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부장적 군국주의하에 서 여성들이 어떻게 희생당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 주었으며, 전쟁중에 여성이 겪게 되는 집단강간, 성노예의 문제를 심각한 여성 인권문제로 인식시키고, 관심갖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 김학순 할머니의 경우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매년 “한국여성대회”시 시상하는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1993년에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빠른 시일안에 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총 154명의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곁에 아직도 계셔야 할 것같은 김학순 할머니도 계시지 않고,그 외에도 많은 할머니들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동에 큰 힘이 되었던 강덕경 할머니도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전후 중국에 버려졌던 정수재 할머니와 정학수 할머니가 전후 50년이 지난 후에야 꿈에도 그리던 고향땅을 찾아왔는데, 운동의 끝을 보지도 못한채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중국 무한지역에서 아직 고향땅을 밟지못한 할머니들도 한분 두분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생존해 계신 분들도 대부분이 연로하고 병약하여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생존자들은 일본이 침략 전쟁을 잘 수행해 내기 위해 저지른 성노예 범죄, 비인도적인 범죄를 증거할 수 있는 역사의 산 증인들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중국 증언집이 3권 출판 되어있으나 할머니들이 살아계실 때 할머니들의 증언을 채록하여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성과 전쟁 사료관”을 통해 여성의 성폭력 피해자들의 희생이 다시는 이 땅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하고 알리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2차대전이 종전되지 53년, 그리고 정대협이 활동을 시작한지 8년이 되는 지금까지, 할머니들과 함께 우리는 일본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범죄를 인정하고, 사죄, 배상할 것을 기다려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운동이 잘못된 과거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고, 여성의 인권을 위한 길이며, 아시아의 진정한 평화를 놓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힘을 가다듬어 우리들의 연대의 힘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세계의 인권,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과의 연대로, 세계 여성의 연대로, 아시아여성의 연대로 일본 정부로부터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 배상 등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늦긴 했지만 피해 여성들의 어렵고 힘든 삶의 질고와 상처를 우리가 함께 보듬고 일본 군국주의에 빼앗긴 후 아직도 되찾아오지 못한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반드시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생존자 복지활동의 최고 목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시아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존자들과 함께 우리의 승리를 확신하며 어떤 전쟁도, 어떤 군국주의도 이 역사에서 다시는 이런 일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활동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계획

지은희(정대협 기획위원장)

한국 정대협 운동은 이제 두 번째의 커다란 전기를 맞고 있다. 첫 번째 전기는 제 52차 UN 인권위원회에서 여성폭력문제 특별 보고관인 라디카 쿠마라스와미의 권고안이 채택된 일이었다.

위안소의 설치가 국제법위반이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것, 피해자 개개인에게 배상할 것, 사회문서공개, 역사교육과 함께 가능한 한 범죄자를 찾아내어 처벌할것등 정대협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반영한 권고안이 일본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었다는 것은 정대협운동의 정당성을 입증한 것이다.

두 번째 전기는 7년 이상이 넘는 운동과정을 통해 한국정부의 입장을 바꾸도록 한 일이다. 한국 정부는 이제 명백하게 공식적으로 일본군'위안부'에 대해 일본정부가 개인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선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 민간위로금 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일본 정부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대한 것이며 「아시아 여성을 위한 평화 국민기금」이 더 이상 필요없음을 실천으로 보여준 것이다. 필리핀, 인도네시아등 아직도 피해자의 생활지원이 필요한 지역의 어려움이 있지만 한국의 경우 우리는 이제 할머니들의 생활상의 곤란이라는 어려움에서 벗어나 우리들의 7대요구 관철을 위해 더 힘차게 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운동을 성공시키기위한 향후 10대 중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1. UN인권위원회, 인권소위원회에서의 활동을 통해 일본정부로 하여금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서의 권고안을 이행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일본이 이행토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국제적 압력을 조성할 것이다.

2. 이러한 국제적 압력중의 하나는 미국과 한국이 행한바 있는 일본전범의 입국금지조치를 '유럽각국이 취하도록 하여 일본의 전쟁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일이다.

우리는 ASEM회의 개최에 맞추어 한국 NGO회의를 구성하여 ASEM에서 인권,복지, 환경문제등이 다루어 질 수 있도록 사회 FORUM을 열 것을 요구하였는데 앞으로는 유럽 NGO와의 연대를 촉진하여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하여 각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운동해 나아갈 것이다.

3. 보다 직접적 압력은 ILO 총회 결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강제노동금지조약 위반임을 확인하고 일본정부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1930년 6월 28일 국제노동기구의 29번째 협약으로 탄생한 강제노동금지조약에 일본은 1932년에 가입했고, 일본군'위안부'제도는 강제노동임이 국제적으로 공인되었으므로 일본정부가 이 조약을 위반할 것임은 자명하다. 문제는 어떻게 일본정부의 ILO분담금을 앞세운 로비활

등을 이겨내며 ILO 총회 의결을 성취해 내는가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NGO단체들의 적극적 활동이 요청된다.

#### 4. 책임자 처벌운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도 분명히 가능한한 범죄자를 찾아내어 처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대협은 1993년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일본의 사미다마겐에서 열린 제 2차 아시아 연대 회의에서 책임자 처벌을 제기한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본 참석자들은 책임자 처벌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일본의 대중들은 말할것도 없고 대부분의 시민운동 단체들이 정신대문제 해결운동에서 떨어져 나갈 것을 염려하여 이 요구를 정면으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았다. 우리는 일본 운동가들의 이러한 염려에 대해 한편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바로 이러한 한계 때문에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이행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아사바와 같이 제 2차 세계대전후 열린 극동 국제 군사 재판소는 일본이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저지른 군인들의 강간행위를 비인도적 범죄로 처벌한 선례가 있다. 또한 네덜란드 출신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하여 전후 1948년 3월 인도네시아 바타비아에 설치된 전범재판소에서 1명의 일본인 장교가 사형을 선고 받는 등 강제 매춘죄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13명 가운데 9명이 유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국제적 선례가 있다. 우리는 일본내에 자료가 완전히 공개되고 진상규명이 진전되어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반드시 밝혀지고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운동은 강화되어야 한다.

#### 5. 일본의 운동단체와 함께할 중요한 운동과제는 특별법 제정운동이다.

이미 특별법제정운동은 다양한 그룹에 의해 진척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단계에서 필요한 특별법의 내용은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배상문제를 다룬것이라야 한다고 본다. 한때 고려되었던 할머니들의 고령과 생활상의 어려움을 감안할 잠정적 조치안은 이제 그 필요가 해소되었으므로 이제는 일본정부의 개인배상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 6. 「아시아여성을 위한 평화국민기금」 측에는 특별법 제정 운동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할머니들의 의료, 주택문제는 한국정부와 한국국민들에 의해 해결되었고, 이제 한국정부에 의한 생활지원금이 지불되고 매월 생활비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단체에 의해 지급되므로 이제 우리들이 함께 할 운동은 할머니들의 생활걱정이 아니라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시켜드리는 일일 것이다. 「국민기금」 측을 우리와 함께 하는 운동 대열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당면과제이다.

#### 7.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의 요구인 일본군 '위안부'제도의 진상규명과 개인배상책임 이행 촉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한국정부로 하여금 일본의 책임 및 배상등 법적문제에 관하여 국제사법 재판소의 견해를 묻도록 요구하는 운동을 펴 나갈 것이다.

쿠마라스와미 권고안에도 이 분제는 명시되어 있는데 비정부단체도 국제 사법재판소 또는 상설중재재판소의 의견을 구하는 노력을 할것과 북한정부와 한국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문의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근 일본정부는 '일체의 국가간 개인간의 배상문제는 65년 한일 협정으로 완료되었으므로 정부가 직접 보상할 계획이 없다'(98.3.31)고 밝힌바 있다. 그렇다면 양국의 입장이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국제사법재판소의 견해를 구하거나 상설 중재 재판소의 견해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일본정부는 94년 11월 정대협이 제안한 PCA에 가서 국제법적 판단을 받아보자는 안을 받아들이지 않은바 있으나 지금은 한국정부의 입장까지도 배치되는 상황이므로 당당하게 국제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양국정부 모두가 국제사법 재판소의 견해를 문도록 운동할 것이다.

8. 운동의 결속력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아시아 피해국간의 연대와 특히 일본 여성운동, 사회운동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아시아 피해국 각국은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하는 수준이 각기 다르고 특히 정부의 입장들이 서로 다르다. 일본정부는 아시아 피해국의 각기 다른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국간의 분리를 일으키고 한국가내에서도 피해 할머니들간의 분열을 가져오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맞서 우리는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이해를 증대시켜 연대들을 강화시킬것이다.

9. 한국에서도 진상조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시키고 이제부터 전쟁과여성 사료관의 건립을 준비하고 역사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갔던 조선의 처녀들이 버려진채 소리없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에 대한 현장조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정신대 연구회에서는 중국동북지역 생존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현지조사에서 일본군이 성병치료나 임신방지를 위해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수은을 사용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지금도 우리는 일본군'위안부'의 전체규모, 어디로 어떻게 끌려가서 어떤 비인간적 대우를 받았는지 패전후 어떻게 버려졌는지에 대한 진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버려진 피해자들은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각국의 연구자들은 진상규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다.

10.일본군'위안부'문제를 계기로 우리는 국제적 인권기구 설립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다.

지금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설립을 위하여 오는 6월 중순에 로마에서는 유엔 회원국이 모여 최종적으로 규약을 논의할 예정이며 여기에서도 여성들은 1)전쟁 중의 여성강간등 여성인권문제가 전쟁문제로 포함되도록 하는 문제,2)판사중에 여성이 포함되도록 하는 문제, 3)강간등의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포함되도록하는 문제를 확실히 다루도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전세계에 대륙별로 인권기구가 있으나 아시아 지역에만 없음을 감안할 때 아시아에도 이러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지역인권기구 설립이 시급하다. 이와같은 국제적 운동의 전개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와같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우리는 정대협이 초기부터 내걸었던 7대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다. 그래서 인류역사상에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가 책임지는 선례를 역사에 남길 것이다.

## 대한민국 국회의 활동과 과제

이미경 (국회의원)

국회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모임 대표

### 1. 대한민국 국회의 활동

'90년대에 들어와서 활성화된 일본군'위안부'범죄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운동은 피해자의 조직화, 국제적인 여론조성, 일본군의 직접관여 시인 등 많은 성과를 낳았다. 이런 성과는 피해자와 민간단체들의 노력에 의존해 왔으며, 국회는 오히려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96년 5월에 개원된 15대 국회는 개혁적인 초선의원들의 대거 진출과 전체 의석에서 3%에 불과하지만 국회사상 처음으로 9명의 여성이 국회의원으로 진출함으로써 과거와는 달리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비롯한 여성문제, 민족문제를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했다.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2년 동안 대한민국 국회는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일본군'위안부'범죄의 일상적인 연구, 각종 정책 제언, 입법 활동, '위안부'범죄와 관련된 예산의 확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러 활동을 통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일본의 '국민기금'은 절대 안된다는 점과 일본정부차원의 법적 배상, 명예회복 조치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갖게 되었다.

#### (1)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제15대 국회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된 첫 활동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이었다. '96년 6월, 9명의 여성의원들이 공동으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현역 의원의 90%가 넘는 270명의 국회의원들로부터 '일본정부는 국민기금을 철회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실시하라'는 서명받았다. 서명의 결과는 일본 총리, 중의원·참의원 등 정계가 전달되었으며, 본인이 서명에 참여한 국회의원을 대표하여 일본에서 중의원 의장을 면담하기도 했다.

이 서명운동은 국회에서 일본군'위안부'운동이 활성화되는 기초를 제공했으며,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된다는 인식을 분명히하는 계기가 되었다.

#### (2)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모임 결성

서명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97년 7월에는 본인을 포함하여 28명의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모임"을 결성했다. 이 "연구모임"은 '96년 UN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바대로 일본정부가 '위안부'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각종 연구활동과 입법, 국제연대활동 등을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3) 출입국관리법의 개정

비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일본군전범'에 대해 출입을 금지한다는 것은 일본군'위안부'문제가 범죄로써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점, 그리고 외교적으로 일본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96년 12월, 미국 법무성이 '위안부'범죄와 731부대 생체실험 등에 가담한 일본 전범에 대해 미국내 '출입금지'를 법률화했다는 언론보도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었다. 미국의 사례를 접하고 바로 연구에 착수하여 '일본군전범'에 대해 우리나라 출입을 금지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했다. 개정법률은 올해 3월 14일부터 시행된다.

### (4)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증액

우리나라 정부는 '93년부터 위안부피해자들에게 500만원의 일시금과 매월 25만원씩의 생계비,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등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매월 25만원의 생계비로는 어려움이 많았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이 국회에 '위안부'피해자들의 생계비를 50만원으로 증액해 달라는 청원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월 생계비 보조금을 증액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노력이 더욱 적극적이었다. 결국 피해자들은 올해부터 매월 50만원의 생계비를 받고 있는데, 행정부에서 제출된 예산이 100%이상 증액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 (5) IPU총회 여성의원회의에서 발언

지난 '97년 4월에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97차 IPU총회의 '여성의원회의'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를 거론했으며, 제98차 IPU총회 여성의원회의 등에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각국 의회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 (6) 우리정부에 "우선보상, 사후 일본정부 배상 촉구"정책 실행 제안

신정부에 대해서는 대만의 경우와 같이 우리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먼저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일본정부에게 배상을 받아내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현재 신정부는 차관회의에서 일본의 "국민기금"을 막기 위한 조치로 1인당 3,800만원씩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바 있으며, 곧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해 정식으로 배상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 정책이 실행될 경우 일본정부는 더 이상 '국민기금'을 강행지급할 명분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며, 이 운동의 성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 2. 앞으로의 계획

### (1) 국회의원간의 국제연대 강화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국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의 양심세력과 긴밀한 연대를 맺을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일본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이런 국제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첫 활동으로 오는 9월 16일~17일에는 국회의원, 민간단체 등을 초청하여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2)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법령시효 비적용에 관한 협약” 연구 및 가입동의안 제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협약을 연구하여 우리정부가 가입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시효부적용 협약’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 협약은 '68년 11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이 협약은 2차 세계대전 후 법령시효를 이유로 전범자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방지하고자 채택되었다.

### (3) 한-일 교과서 비교연구 및 바람직한 교육방안 제시

한-일 역사교과서의 ‘위안부’관련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결과 제시된 정책과제는 교육부에 제출하여 올바른 교육을 실시하록 촉구할 계획이다.

### (4) 결의문 채택

지난 해 10월, 국회는 41명의 국회의원 공동명의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올바른 해결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일본군‘위안부’문제가 비인도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법적 배상과, 진상공개,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국회가 정식으로 일본정부에 ‘위안부’범죄를 올바르게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 3. 맺는 말

7년이 넘게 이어져온 이 운동은 그동안 많은 성과와 함께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운동의 보다 효과적인 전진을 위해서는 민간단체와 의회, 정부 등의 공동노력이 매우 중요하며, ‘위안부’문제 올바르게 보다 빠른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공동으로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

(1)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것처럼 다른 피해국도 비인도적 범죄에 가담한 ‘일본군전범’의 출입국금지를 국내법으로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 여러 피해국에서 이같은 법이 채택될 경우 일본정부에게는 외교적으로 큰 압력이 될 것이다.

(2) 대만정부의 경우와 같이 ‘국민기금’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각국 정부가 먼저 보상하고, 일본정부에게 정식으로 배상을 청구하도록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도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오는 6월 유엔에서는 대량학살 및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단죄를 위해 ‘국제형사재판소’를 상설화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설화될 경우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여성에 대한 잔혹한 성노예범죄인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